



즉시 배포용: 2025년 12월 10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뉴욕주 병원에서 외국어 지원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

**영어 이외의 언어를 구사하는 뉴욕 주민 수백만 명의 평등한 의료 접근권 보장**

***법안 S6288B/A387B에 따라 모든 뉴욕주 병원은 적절한 외국어 지원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시행***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주 전역의 일반 병원이 의무적으로 외국어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모든 환자의 평등한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법안 제정에 앞서, 뉴욕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 이용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노력에서 전국을 선도해왔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언어 때문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의료 접근권을 침해 당해서는 안 됩니다. 법안 서명으로 모든 뉴욕 주민은 자신의 제1언어가 무엇이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으며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 따라 모든 일반 병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외국어 지원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 외국어 지원 코디네이터 임명
- 외국어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시기적절하게 식별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및 절차
- 병원 임직원에게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 서비스 관련 내용 게시
- 의료 기록에 선호 언어 포함
- 숙련된 통역사를 비롯해 시각 및/또는 청각 장애인과 소통할 수 있는 직원 확보

**Gustavo Rivera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의 병원 내 언어 접근성 확보는 의료 보편권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Liu 상원의원과 Rozic 하원의원이 발의한 중요한 법안에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John Liu**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들어온 모든 환자는 의사와 명확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시간이 중요한 응급상황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불행히도 너무 많은 어린 아이들이 이민자 부모를 위해 복잡한 의료 정보를 통역해야 합니다. 이는 주 병원에 외국어 지원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법안은 모든 뉴욕 병원에서 외국어 서비스를 의무화하여 모든 뉴욕 주민이 문제 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Amy Pauli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Rozic 하원의원과 Liu 상원의원은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를 위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의료 공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법안을 통해 오랜 문제가 해결되며, 병원은 지역사회 수요에 더욱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안에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Nily Rozic**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료 서비스 이용이 영어 구사 능력 때문에 방해 받아서는 안 됩니다. 환자라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주신 Hochul 주지사와 법안 제정을 위해 협력해주신 John Liu 상원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병원이 지역사회의 수요에 더욱 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Michaëlle Solage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은 양질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필요한 진료를 받는 것에 언어가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법안으로 우리 시스템은 더욱 공정하고 접근이 쉬우며 문화적 요소를 반영하게 됩니다. 외국어 지원 확대로, 환자들은 오해의 불안 없이 서비스 제공자와 명확하게 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수적인 법안을 추진해주신 Hochul 주지사와 Rozic 하원의원, Liu 상원의원께 감사드립니다."

간호사인 **Karines Reye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인구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청력에 문제가 있거나 기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모두 일반 병원에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언어 장벽은 이러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진료를 제공하는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Hochul 주지사의 이번 법안 서명은 이러한 장벽을 없애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의료 시설이 언어 지원이 필요한 모든 환자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병원이 진료 접근성을 확대해나가기 바랍니다."

**Jessica González-Roja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A387B 법안 서명은 모든 뉴욕 주민이 진료를 받을 때 명확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라 병원은 의무적으로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각종 양식을 번역하거나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이제 환자들은 치료, 비용, 후속 치료 등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뉴욕주에서 가장 문화적, 언어적으로 다양한 곳 중 하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번 법안이 제 가족과 같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또는 생명을 구하게 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법안에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리며, 리더십을 발휘해 법안을 발의한 Nily Rozic

하원의원과 **John Liu** 상원의원께 축하를 전합니다. 이제 법안 **A387**의 제정으로 우리는 더욱 공정하고 모든 지역사회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Jenifer Rajkumar**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언어적으로 다양한 지역사회인 퀸즈를 대표하는 저는 모든 뉴욕 주민의 언어 접근권을 보장하는 이번 법안을 공동 발의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위기 상황, 특히 응급실 등에서 신속한 치료로 생사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언어 때문에 진료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법안 제정으로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은 수어나 외국어 등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에 관계 없이 의료 기관에서 자신의 상태와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진실을 다시 확인합니다."

**Grace Lee**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어 장벽 때문에 많은 이민자 뉴욕 주민들이 자신의 건강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모든 환자가, 언어에 관계 없이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토록 중요한 법안을 발의한 **Nily Rozic** 하원의원과 **John Liu** 상원의원, 법안에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Steven Raga**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언어를 구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건강의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지역 중 하나인 퀸즈에서 이러한 장벽의 존재가 더욱 잘 드러납니다. **A387**의 통과는 모든 뉴욕 주민이 번역 서비스를 통해 양질의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CACF**의 공동 사무총장인 **Anita Gundanna**와 **Vanessa Leung**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어 접근성은 의료 평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에서 1/3의 아시아계 미국인 뉴욕 주민은 한정된 수준의 영어 구사 능력(**LEP**)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언어 장벽으로 인해 이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병원 외국어 지원법 **S6288B/A387B**에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모든 환자가 자신이 구사하는 언어의 종류에 관계 없이 뉴욕주 병원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문화 감수성을 가진 외국어 지원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우리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삶은 크게 바뀔 것입니다. **CACF**와 우리 연합은 법안 발의자인 **Nily Rozic** 하원의원과 법안 제정을 위해 힘써주신 **John Liu** 상원의원의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합은 이들과 함께 법안을 지지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외국어 접근성 서비스가 주 전역에서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Chinese-American Planning Council**의 **Wayne Ho**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안 **S6288B/A387B**을 제정해 뉴욕주 병원에서 언어 접근성을 확대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부터 병원과 진료 예약 등

필수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한정적인 영어 구사 능력을 가진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 구성원들 역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의료진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존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 시기적절하게 자신의 언어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법안은 의료 서비스 내의 격차를 해결하고 가장 취약한 뉴욕 주민이 평등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의미한 정책입니다. 우리의 이민자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Rozic 하원의원과 John Liu 상원의원께 감사드립니다."

**Asian American Federation(AAF)의 Daphne Thammasila 프로그램 부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Asian American Federation에서 우리는 언어 접근성 보장이 아시아계 뉴욕 주민의 건강과 복지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뉴욕 주민 약 절반, 고령자 70퍼센트 이상이 언어 장벽 때문에 심각한 접근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단지 통역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AAF가 최초로 아시아어 통역사 조합 등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해 도시 전역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법안을 지지해주신 Rozic 하원의원과 Liu 주 상원의원께 감사드리며, 법안에 서명한 Hochul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모든 뉴욕 주민은 사용 언어에 관계 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Asian Americans for Equality (AAFE)의 Thomas Yu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백만 뉴욕 주민이 이용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줄 중요한 법안에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와 법안을 지지해주신 Rozic 하원의원과 Liu 상원의원께 감사드립니다. AAFE에서 우리는 매일 한정적인 영어 구사 능력을 가진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환자들이 의사나 기타 의료진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은 모든 사람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CAIPA의 대표 겸 최고경영자인 George Liu 의학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400명 이상의 지역사회 의사를 대표하고 아시아계 뉴욕 주민 500,000명 이상에게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로서 CAIPA는 모든 병원에 종합 외국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환자가 선호하는 언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진료의 안전과 평등, 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환자도 자신의 건강 상태나 치료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MinKwon Center for Community Action의 Yoon Ji Kim 임시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의료 평등 추진 노력이 거둔 역사적인 승리입니다. 41년 동안, Minkwon Center for Community Action은 한국계, 중국계, 기타 AAPI 이민자들이 의료 및 필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 구조적 위기에 대응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계 뉴욕 주민들이 언어 장벽으로 인해 병원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목도해왔습니다. 우리 의료 설문조사에 따르면 언어가 가장 높은 의료 장벽 중 하나이며, 올해 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87퍼센트에게 영어는

제1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권의 부정으로,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안 A387B/S6288B을 통해 뉴욕주는 마침내 실질적인 솔루션을 마련했습니다. 병원은 숙련된 통역가를 갖추고 접근성을 유의미하게 보장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법안을 지지해주신 Rozic 하원의원과 Liu 상원의원, 모든 뉴욕 이민자의 건강을 보호할 법안에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Women for Afghan Women의 사무총장인 Susan Aryan Antoli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어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Women for Afghan Women (WAW)에서 우리는 통역사가 없어 기본적인 의료 정보에 접근하는 것조차 어려운 가족들을 돕고 있습니다. 도시 전역의 이민자, 난민 출신 뉴욕 주민들이 같은 경험을 합니다. 병원의 언어 지원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생명과 관련 있는 일이므로, 이번 법안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American Pakistani Advocacy Group의 Ali Rashid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양질의 진료를 받는데 언어가 더이상 장벽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랜드마크 법안 A387B/S6288B에 서명해주신 Kathy Hochul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수많은 파키스탄, 남아시아, 이민자 출신 가족들에게 이번 법안은 더욱 안전한 진료와 분명한 소통, 존엄을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법안을 지지하고 병원에서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Nily Rozic 하원의원과 John Liu 상원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법안 제정은 모든 뉴욕 주민은 사용하는 언어에 관계 없이 의견을 표명하고 이해하며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The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s Center의 Jeehae Fischer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 Center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언어 장벽이 이민자 생존자와 가족들의 불안과 분리를 악화시키는 것을 봅니다. 남편에 의해 칼에 찔린 생존자가 병원에 도착했으나 통역사가 없어 어린 자녀가 어머니가 겪은 일과 아버지의 폭력을 의료진에게 설명해야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어린이도 이러한 부담을 짊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생존자도 익숙치 않은 언어로 안전과 회복을 위해 싸우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법안 서명으로 뉴욕은 모든 뉴욕 주민, 특히 젠더 폭력 생존자가 문화적, 언어적으로 배려받으며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 과정에서 명확한 소통과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진정으로 평등한 의료로 향해 나아가는 유의미한 정책입니다. 뉴욕주의 이민자 생존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Hochul 주지사와 의회의 John Liu 상원의원, Nily Rozic 하원의원께 감사드립니다."

**South Asian Council for Social Services의 Rehan Mehmood 의료 서비스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South Asian Council for Social Services (SACSS)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존엄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요한 병원 외국어 접근성 법에 서명해주신 Kathy Hochul 주지사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입법가 및 지역사회 기반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법안을 추진해주신 John Liu 상원의원과 Nily Rozic

하원의원의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 내 병원 언어 접근성 확보는 의료 시스템을 강화할 것입니다."

**Sandra Ung** 뉴욕시 시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법안 서명은 한정적인 언어 구사 능력을 가진 이민자, 뉴욕 주민의 큰 승리입니다. 플래싱처럼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지역사회에서 많은 환자들은 진단과 치료, 퇴원 수속 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모두는 통역 서비스의 부재 때문입니다. 모든 환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관계 없이 정확한 정보를 얻어 의료 시스템을 안전하고 자신감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안에 서명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Rozic 하원의원과 Liu 상원의원의 리더십과 노고 덕분에 우리 의료 시스템은 이제 더욱 평등하게 모든 뉴욕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Linda Lee** 뉴욕시 시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의료 시스템을 이용할 때 언어 접근성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신 Hochul 주지사와 주정부 관계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뉴욕시의 다양한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중요한 법안을 통해 가족들은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Alexa Avilés** 뉴욕시 시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반드시 뉴욕 주민의 공공 서비스 및 돌봄 접근성을 높일 언어 접근성 정책을 지지해야 합니다. 우리 공공 보건을 강화할 훌륭한 이니셔티브입니다."

**Mercedes Narcisse** 뉴욕시 시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ity Council's Committee on Hospitals의 의원장이자 영어를 거의 하지 못한 상태로 이 나라에 온 이민자로서 저는 정확한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복잡한 의료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진료를 받으며 무력감을 느끼거나 두려워하거나 혼란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오늘 Hochul 주지사의 서명은 우리 의료 시스템의 공정과 평등을 위한 큰 성과입니다. 병원이 의무적으로 종합적인 외국어 지원 프로그램을 구비하도록 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며, 모든 뉴욕 주민이 중요한 사안에서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주지사 사무실에 업데이트 신청하기: [ny.gov/signup](http://ny.gov/signup) 81336번으로 NEW YORK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구독 취소](#)